

2.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 답안

[논제 I]

제시문 [가]와 [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식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가]는 견고한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명한 군주는 인간의 방법과 짐승의 방법을 모두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중에서도 기만과 위선에 익숙한 여우의 방식을 가장 잘 모방해야 하는데, 이는 신의를 지키며 정직하게 살기보다는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여 때로는 약속을 파기하고 상대방을 기만할 줄 아는 위선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제시문 [나]는 우리가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먼저 선하고, 깨끗하며, 변하지 않는 이상 사회와 같은 궁극적 목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사회 곳곳의 모든 분야에서 잘못된 제도를 철저히 근절해 버리는 전면적이고, 비타협적이며, 급진주의적인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가]와 [나]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정치적 목적의 차이인데, [가]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와 같은 현실적 목적, [나]는 이상 사회의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차이인데, [가]는 현실과 타협하고 때때로 상대방을 기만할 줄도 아는 현실주의적 방식을 제안하는 반면, [나]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사회 모든 분야의 악습을 철저히 뿌리 뽑는 이상주의적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671자]

[논제 II]

제시문 [바]는 주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현실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가지’는 자신을 믿어 주는 ‘뿌리, 꽃, 잎’의 협력과 ‘비, 폭설’의 단련을 통해 장애에 도전한다. 장애물인 ‘담’조차도 금단에 도전할 꿈을 꾸게 해 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현실의 문제를 협력과 연대를 통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마]를 평가해 보자. 제시문 [다]는 사악한 노파를 살해하고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의롭다는 인식을 근거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살인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 달리 제시문 [바]는 역경과 장애로 여겨질 존재조차도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삼고 이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정의라는 절대적 이상을 정해 놓고 사회악을 뿌리째 제거해야 한다는 제시문 [다]의 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할 것이다.

반면에 제시문 [라]는 자신의 현실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지만, 갑자기 만물이 또렷해지자 도리어 집을 찾지 못한다. 이 사람에게 화담 선생은 눈을 도로 감고 가라고 조언한다. 눈을 도로 감으라는 것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의 입장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이 자신의 길을 가는 데 장애가 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현재 조건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현실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다. 자신의 조건과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된다.

한편 제시문 [마]에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딸을 부잣집에 시집보내려는 유 씨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초봉의 태도는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주체적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의 문제는 순응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은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1,086자]

3.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채점 기준

1. 점수 배정

- ① 만점 :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 ② 기본 점수 :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원고분량에 따른 감점

- ① 원고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논제 I> (601자 이상~700자 이하)

- 500자 미만: 감점 20점
-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 800자 이상: 감점 20점

● <논제 II>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 900자 미만 : 감점 20점
- 900자 이상~950자 미만: 감점 10점
- 1150자 이상~1200자 미만: 감점 10점
- 1200자 이상 : 감점 20점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 처리)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나]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가], [나] 논지의 차이가 잘 드러나게 서술하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 채점시 유의사항

- (1) 제시문 [가]는 권력 유지와 같은 현실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명한 군주는 때때로 현실과 타협하여 약속을 파기하고 상대방을 기만할 줄 아는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제시한다.
제시문 [나]는 선하고 깨끗한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사회 모든 분야의 잘못된 제도를 철저히 근절해 버려야 한다는 이상주의적 입장을 제시한다.
- (2)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파악해서 요약하고 그 논지의 차이(출제자의 의도 파악)를 대비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높게 평가를 한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행위에 대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차이를 부각한 답안의 경우 높게 평가한다.
- (3) 각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는데,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는가를 중요시한다.

2) <논제 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바]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서술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부정적, 비판적 평가)
- ③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긍정적 평가)
- ④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제시문 [마]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했으면 10점 가점(부정적, 비판적 평가)
- ⑥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는가를 중시한다.

※ 채점시 유의사항

- (1) 제시문 [바]의 시는 담을 넘는 수양버드나무 가지를 보면서 현실의 과제를 주변의 협력과 연대, 문제 해결의 의지(용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제시한다. 시적 화자는 현실을 둘러싼 여러 요소들을 협력과 연대, 자극과 동기부여의 존재로 인식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긍정적, 진취적, 상호 협력적인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내용이 답안에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2) 제시문 [바]가 현실의 과제를 주변의 협력과 연대, 용기(의지) 등으로 극복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제시문 [다], [마]는 부정적인 평가를, 제시문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사악한 노파 살해를 통한 정의 실현 의지를 피력하는 대화 장면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살인을 정당화하는 태도이다. [바]의 관점에 따르면 절대적 기준(정의)을 정해 놓고 사회악(장애물)을 일거에 제거해야 한다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바]의 시에서 자신을 가로막는 ‘담’조차도 금단에 도전할 꿈을 꾸게 해주는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모습과 비교해서, 노파에 대한 적개심만으로는 사회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앞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지만, 갑자기 만물이 또렷해지자 도리어 집도 찾지 못하는 바보가 된다. 이 사람에게 화담 선생은 ‘눈을 도로 감고 가라.’고 조언하는 장면이다. 이는 자신의 현실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뜻으로, [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의] 눈을 뜬 사람에게 다시 눈을 감고 가라는 말에 대해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로 회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의 앞뒤에 ‘본분으로 돌아가라.’, ‘자기 걸음을 믿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적 요소가 아닌, 자기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 상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것이므로 이를 현실 안주, 과거 회귀로 볼 수 없다.

▶ [마]: 어머니 유 씨는 혼수비 일체를 덜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장사밑천을 대준다는 부자 태수의 제안을 딸에게 조심스럽게 꺼내고, 딸 초봉도 마음에 둔 사람이 있지만 어머니의 제안에 수긍한다. [바]의 관점에 따르면, 자기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돌파하기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인 극복하고자 한다면, 가족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가난을 스스로 이겨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3)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비판적 평가를 하게 될 제시문 [다], [마],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될 제시문 [라]로 순서를 바꾸어 진술할 수 있을 것이다. 순서를 바꾸어 진술해도 감점하지 않는다.

[참고] 제시문 출전

[가]: ①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고등학교 고전』, 교학사, 2013, pp. 123~124.

② 『고등학교 법과 정치』, 천재교육, 2013, pp. 12~15.

[나]: ①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3, p. 22.

② 칼 포퍼 지음, 이한구 옮김,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민음사, 2006, pp. 261~262.

[다]: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고등학교 고전』, 천재교육, 2013, pp. 262~266.

[라]: 박지원, <창애에게 답하다(答蒼崖)>(『연암집』), 『고등학교 고전』, 해냄에듀, 2013, pp. 328~330.

[마]: 채만식, <탁류>, 『고등학교 문학』, 해냄에듀, pp. 22~24.

[바]: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2013, pp. 45~46.